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판세 <세 후보 자체 분석>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강운태·이용섭·정동채 등 3명의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은 자체 판세 분석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선거캠프에서 참모들과 함께 시민배심원 평가에 대비한 전략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등 막바지 선거운동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각 후보 측의 자체 경선 판세 분석을 들어본다.

여론조사 꾸준한 1위 '姜 대세론' 변화없다

■ 강운태 캠프

강 후보는 확실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투명하고 검증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된다면 후보 간 다소 상승과 하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승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단 한 번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대세는 강 후보 측으로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변화없는 여론은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민심이 강 후보 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강운태 대세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강 후보는 그동안의 TV토론회를 통해서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세론으로 경선이 진행된다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시민배심원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광주를 잘 아는, 광주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배심원 표심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매니페스트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배심원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기여도·개혁성 앞서 시민배심원 승리 확신

■ 이용섭 캠프

이용섭 후보는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우선 시민배심원에서 다른 후보와 큰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세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아무런 흠도 없는 '100% 클린' 관정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 기여도나 개혁성도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어 중앙 배심원단과 지방 배심원단 모두로부터 월등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원 전수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인 결

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이 시행하려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 즉 '20자 이내'에서 '경력을 2개' 넣어 실시해 온 지금까지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 또는 오차범위 내 점진을 유지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단체장 후보경선이 실시된 서울 은평구와 충북 음성군의 경우도 시민배심원제와 당원 여론조사 결과 참신성과 개혁적인 인사가 기존의 평가를 깨고 공천자로 결정된 점도 이 후보 측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남은 기간 조직을 총동원해 여론조사에 대비하고 시민배심원 평가에 대비한 정책자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덕성·공약 시민 호감 지지율 가파른 상승세

■ 정동채 캠프

정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의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선관위에 공식 등록한 예비후보 신분을 활용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끊임 없이 접촉해 온 점이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 차례 이뤄진 TV방송사 주관 토론회에서도 준비된 시장 후보임을 충분히 알렸다는 점도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0년대 민주화 투쟁 당시 언론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후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과 함께 민주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광주시민의 정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어우러진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문화경제 시장으로 15만 개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시민들에게 크게 호감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지금은 여론조사 상으로 강운태 후보와 양강 구도 속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배심원단의 성격이 진보적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권익기자 cki@

■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어떻게 처리지나

정견 발표·상호 토론...후보 검증 토론회  
오후 5시 투표 마무리 당선인 즉석 발표

민주 전남지사 후보 경선 최악 위기

주승용·이석형 "요구 수용까지..." 등록 거부  
방송 토론회 등 일정 차질...17일 경선도 위태



민주당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승용(여수=오른쪽)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8일 오후 순천 로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불공정을 주장하며 경선 후보 등록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동부취재본부=김중경기자 ejkim@kwangju.co.kr

민주당 중앙당의 경선후보 등록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또다시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위기를 맞고 있다. 주 의원과 이 후보는 8일 오후 5시 30분 순천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경선 방식에 대한 관심과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으나 무관심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오늘 밤 10시까지 후보 등록을 연기한다는 일방적 입장만 전달해 왔다"며 "특정 후보에 편향적인 여론조사 방식의 시정 및 기초단체장 경선 이후 광역단체장 경선 시행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예정된 후보 간 방송 토론회는 물론 오는 17일 경선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이 이처럼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공정한 경선(도민 여론조사 50%+당원선거인단 투표 50%)을 위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이날 최재성 선관위 간사

를 만나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 ▲표본 모집시 연령 구분 세분화 ▲표본 수 확대 ▲무응답층에 대한 재질문 불가 ▲김대중 등 유명 정치인 이름의 경력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또 당원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도당 대의원은 배제하고, 중앙당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추가한 것은 특정 후보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을 광역단체장 경선 이후에 치르자는 것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라며 "박준영 후보 측이 '기초단체장 후보 줄세우기'를 통해 경선을 기득권층의 세력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여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당에서 경선을 할 때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경선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며 "당의 경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오후 1시부터 시작돼 4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50%가 반영되는 시민배심원 경선은 현장에서 진행되지만, 또 다른 50%가 반영되는 전 당원 여론조사는 7일 오후부터 9일까지 5개 여론기관에 의해 나눠서 진행돼 그 결과가 봉인된 상태에서 경선 현장으로 전달된다. 7일부터 중앙당으로부터 선정을 받은 시민배심원은 경선 당일 오후 1시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경선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 방식 등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공식 경선은 오후 1시40분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되며 원혜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대회사, 정세균 대표와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최연소 배심원이 대표로 "건전한 시민의 품위를 지키고, 우리 강령을 준수하며, 경선 후보들을 당헌·당규·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배심원 선서문을 낭독한다. 시민배심원제의 핵심인 후보 검증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순회제 한국NGO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재은·배옥병·최병두·오수열씨가 패널로 참가, 2시간 20분여 동안 실시된다.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기호 순으로 이용섭, 정동채, 강운태)와 패널 소개에 이어 토론회가 시작되며 후보자 동영상 상영 및 정견 발표(각 7분)→정치·정책 토론(52분)→후보자 상호토론(22분)→종합토론(26분)→배심원 서면질의(9분)→마무리 발언(9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민주당 중앙당은 오후 4시20분부터 시민배심원단 투표를 시작해 오후 5시까지 개표를 마무리하고 당선인을 즉석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8일 "광주시민이 정치 역량이 큰 만큼 어느 지역보다 현지 배심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모범이 되는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훌륭한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inair flights from Muju to Osaka. The ad features a large airplane flying over a landscape with cherry blossoms and a traditional Japanese building. Text includes '무안 오사카 직항' (Muju Osaka Direct Flight), 'JINAIR', and '광주MBC 문화탐방' (Gwangju MBC Culture Expedition). Contact information for Land Bank is provided at the bottom.